

#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김유진	학과(전공)	바이오및뇌공학과
파견대학	도쿄공업대학	파견(참여)기간	2022.10.03~2023.02.11
파견 프로그램명	CAMPUS Asia 동경공대 연구중심 프로그램		

## 1. 출국 전 준비사항

### A. 프로그램 지원과정

카이스트 포탈에서 업로드 된 공지문을 보고 지원.

Academic transcript, CV, KAIST enrollment certificate, TOEIC Test result, 여권복사본, 지원서, 증명사진 제출하고 이후 면접 통해 선발.

###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담당자님이 빠른 대응을 해주어서 편했음.

###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1년 학생비자 신청. 비자신청서와 COE(카이스트에서 수령), 접수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대행사 방문. 현재 일본 비자는 대사관에서 개인 신청이 안되고 대행사를 거쳐서 신청해야 함.

출국 전 약 일주일정도 전에 집(대전)에 배달됨. 일찍 접수해도 출국 직전에 배송한다고 안내 받음.

대전에서 서울로 ktx (왕복 약 55000원) 를 타고 당일치기로 접수.

###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인터파크 투어에서 인천공항-나리타공항 왕복 약 28만원으로 구매

###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삼성보험 글로벌 케어 약 17만원

###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강의는 3Q와 4Q 한번에 도쿄텍 포탈에 수강신청함. 3Q와 4Q 총합 9학점 이상이어야 함. 일본어 수업의 경우는 JCOS site에서 레벨테스트를 본 후 해당 레벨에 맞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고, 해당 수업의 첫 번째 수업에 필수 참석을 해야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음.

연구실 배정의 경우는 지원서에 1,2,3지망 연구실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교수님이 accept하신 연구실로 배정됨.

## 2. 학업 관련 (A. 강의 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생명과학과 전공만 수강하였고 모두 줌 수업으로 진행. 수업 내용은 카이스트에 비해 굉장히 쉬웠고 과제는 보통 A4 1장 이내로 작성함. 시험은 없었고 레포트로 대체. 하지만 평가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고 몇 점을 받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감점되었는지 일절 알려주지 않음. 3Q 전공의 점수는 이후에 포탈에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 점수를 얻었는지 교수님께 먼저 메일을 보내지 않는 한 알 수 없음.

일본어 수업은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었고 Activity가 많아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적합했음. 과제가 매주 있었고 시험과 퀴즈를 적절하게 보아 꾸준히 복습할 수 있었음. 일본에 거주하며 실생활에 사용하기 용이한 문장이나 문법 등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음.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생명과학 전공 연구실은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 있음. 오오카야마 캠퍼스에서 이동할 시 1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음.

연구주제는 BRET Q body라는 단백질 바이오센서에 관한 것으로 발광효소 등을 적절히 바꾸어가며 반응성을 확인해보며 무엇이 더 실용적일지 연구함. 유사한 주제를 진행 중인 튜터가 배정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과 이유 등을 잘 알려주어서 공부하기 수월했음. 매주 랩미팅과 그룹미팅이 있었고 11월부터 그룹미팅에 참여하여 그동안의 연구 진행을 피드백 받았으며 1월에 랩미팅에서 발표함.

연구 결과는 뚜렷하게 보였지만 논문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음.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 3. 비용

A. 기숙사 (숙박)

학교에서 제공.

B. 식사

지원받은 돈과 사비로 해결. 평균 6만엔

C. 기타 생활비

지원받은 돈과 사비로 해결. 평균 4만엔

## 4. 학교 캠퍼스

####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오오카야마 캠퍼스는 비교적 크고 사람이 많음.

스즈카케다이 캠퍼스는 작고 사람이 적음.

####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오오카야마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지하철 라인이 2개, 급행이 서는 역이여서 음식점과 카페 등등이 많아 사람도 많음.

스즈카케다이 캠퍼스는 시내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고 거의 도쿄공대 대학원생들이다. 음식점 또한 1~2개 정도임. 한 정거장 뒤에 그랜베리파크라는 큰 복합시설이 있지만 교통비도 들고 연구실에서 빠르고 쉽게 갈 수는 없었음.

#### C. 그 외 사항

### 5. 언어 사용

일본어가 불가해 영어를 주로 사용함.

###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입실: 2022.10.01

퇴실: 2023.02.13

매니저분이 보통 상주해계시지 않아 체크아웃을 할 때 그냥 키를 두고 나왔음. 보통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 해결하는데 하루 정도면 답이 오고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긴 하지만, 매니저분이 계시지 않아 항상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가끔씩 1층에서 파티를 열곤 하는데 복도를 돌아다닐 때 조금 시끄러웠음. 하지만 방과 화장실, 기본 시설 자체는 깔끔해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방음도 잘 되는 편임.

### 7. 학교 생활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나 K-pop 등을 많이 물어보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음. 나는 낮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 연구실이 있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에 약속을 많이 잡지 않았지만 캠퍼스가 오오카야마에 있었다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음.

###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도쿄공대와 카이스트 모두 CAMPUS Asia 담당자분들이 매우 친절하시고 대응도 빠르셨음. 또한 추가로 여러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일본 문화 등을 많이 알 수 있어 좋았음.

##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하지 않음.

## 10. 여행 등 개인 활동

프로그램 초기에는 일본생활과 연구실 적응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 않았음. 12월부터 주말에 도쿄 근교를 혼자 당일치기로 가거나, 시부야 쪽을 구경하러 감. 캠퍼스 아시아 참가학생들과 함께 2월에 삿포로 여행을 감.

##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현금은 반드시 3천엔 이상은 들고 다녀야 함. 생각보다 현금만 받는 데가 많음.

시내에 나갈 경우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파스모에 항상 2천엔 이상은 충전해 놓는 것이 좋음. 또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곳은 파스모로 결제할 수 있는 데도 많음.

학교 제외 영어가 수월하게 통한 적은 없어서 기본적인 일본어(식사 주문, 식당 예약 등)은 미리 익혀가는 것이 좋음.

## 12. 파견 소감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학원에 진학할지 결정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방식을 경험하며 언어 스피킹 실력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 이룬 거 같아 만족함. 캠퍼스 아시아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2개월동안 진행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영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흥미가 생겨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목표가 생겼음. 해외에서 오래 사는 것은 처음이고 한번도 외국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